

대한물리치료사 회원의 근황에 대한 고찰

백 진

1. 서 론

5년만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197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물리치료로서의 임상경험을 통해본 결과 협회 회원의 과반수만이 임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건사회부와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의학기술초급대학을 찾아다니며 정확한 회원의 동태를 알고져 노력해 왔었다.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얻은 자료와 모교에서 얻은 자료를 연구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 물리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물리치료사가 그때문에 걸어야하는 험난한 길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재활의학에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갖고져 하는 분에게 물리치료의 올바른 인식은 물론 물리치료사의 가치관을 평가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짜임새있는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보고서를 쓰고져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의 현대적인 시초는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살펴보면,

1949년 미국인 선교사이며 물리치료사인 Thelma Maw 여사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 도중 우리나라에 들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보급이 되어 있지 못함을 알고 애초의 목적지였던 중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세브란스에서 선교사업과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유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Maw 여사는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전주예수병원에, 1969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감리교회 파송선교사로 월남 다낭재활원에 근무하셨고 그후 현재까지 계속 세브란스(연세의료원) 병원 재활원에 근무하고 계신다.

Maw 여사 다음으로 1960년경 캐나다 선교사이며 물리치료사인 마리온·카렌트여사가 연세의료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시게 되면서 Maw 여사와 함께 선교사업, 환자치료를 하시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양성을 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진 것은 6·25동란 후 격증하는 전상자(戰傷者)들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여 1951년 중앙상이군인정양원이 부산동래에 세워졌고 1952년부터 UNKRA의 협조를 받기 시작했고 1954년부터는 한미재단의 협조도 받기 시

작하여 같은 해에 시설을 확장하여 동래국립재활원이라고 개명하고 환자진료와 병행하여 재활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곳 의무과장으로 계시던 재활의사 오 정희여사께서 동료인 임 귀순씨의 협조를 받으며 직업재활에 힘쓰시는 한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셨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시초는 1963년 2월 종로구 명륜동에 있던 수도의과대학에 당시 학장이셨던 김 영택박사님과 주인호박사의 노력으로 의학기술초급대학이 설립되었다.

1965년 2월 15명의 1회졸업생을 필두로 1976년까지 12회 384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1974년 2월 성남시 단대동에 신구전문학교가 제 2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李 鍾 翊氏가 설립하시고 초대교장으로 백 철씨역임) 1976년 2월 최초로 46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1976년 2월 원광대학부속보건의전문학교와 수원에 동남보건전문학교에 물리요법과가 신설되었다.

II. 본 론

1. 회원현황(그림 1, 1' 1" 참조)

먼저 1976년 11월 15일 현재 보사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수는 359명이며 이 중 여자가 218명, 남자가 141명이나 여자 1명이 서독병원에 파견 근무중 교혈압으로 사망하여 사실상 현재원은 358명이 되었다. 이를 여러 각도로 분류해 보면

그림 1. <1976. 11. 15. 현재>

상태의 분류	취 업		미 취 업		해외이주		기 타		합 계		총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련 및 교육기관구분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의학기술초급대학	53	84	33	61	17	20	7	0	110	165	275
신 구 전 문 학 교	1	6	4	5	0	0	4	0	9	11	20
세 브 란 스 병 원 수 련	3	6	0	1	0	3	0	0	3	10	13
동 래 국 립 재 활 원 수 련	6	11	3	6	3	3	0	0	12	20	32
기 타 (간호장교, 외국교 육및타병원수련생)	2	0	3	7	2	1	0	1	7	9	16
외 국 인	0	3	0	0	0	0	0	0	0	3	3
계	65	110	43	80	22	27	11	1	141	218	359
남 녀 합 계	175		123		49		12		359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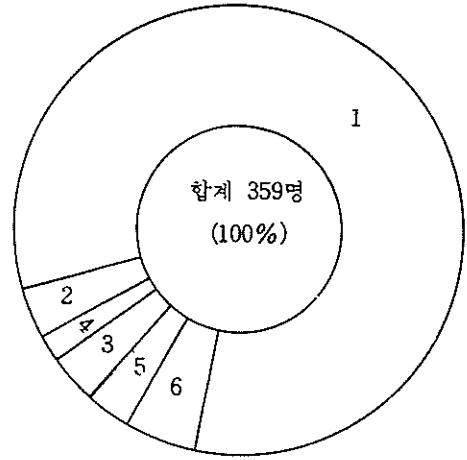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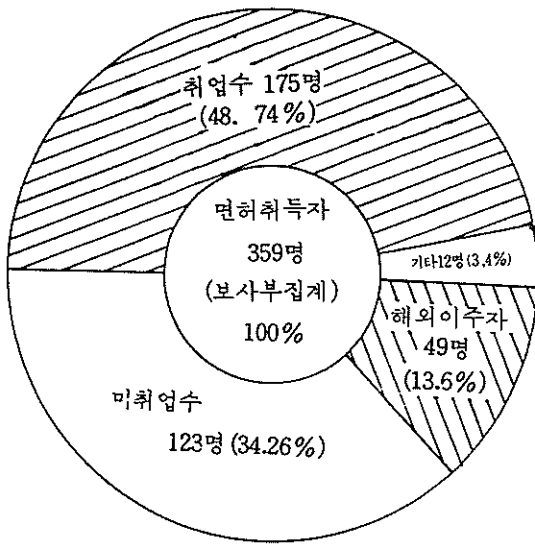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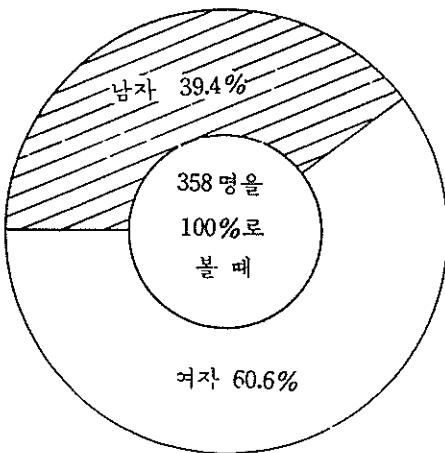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 ※ 기타 < 남자의 경우 군 복무중 여자의 경우 사망 >

번호	수련 및 교육 기관 구분	인원수	Percent
1	고려대학교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	275	76.6
2	동해국립재활원수련자	32	8.9
3	신구전문학교	20	5.5
4	세브란스병원수련	13	3.6
5	기타	16	4.45
6	외국인	3	1
	합계	359	100

<별첨 1> 성별에 의한 분포율 ※여자사망 1명 제외해서 358명



a. 성별에 의한 분류 < 남자 39.4% 여자 60.6% (별첨 1 참조)

b. 수련별로 분류해 보면 (그림 1" 참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의학기술초급대학을 졸업한 물리치료사가 2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래국립재활원에서 양성된 물리치료사가 32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기타는 간호장교로써 물리치료를 수련받았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물리치료사와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물리치료사를 말한다. 수

외국인으로써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로서 병원에 근무하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나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Thelma Maw (한국명 모 우숙) 여사와 Marion Current (한국명 구 애련) 여사와 Johnston 양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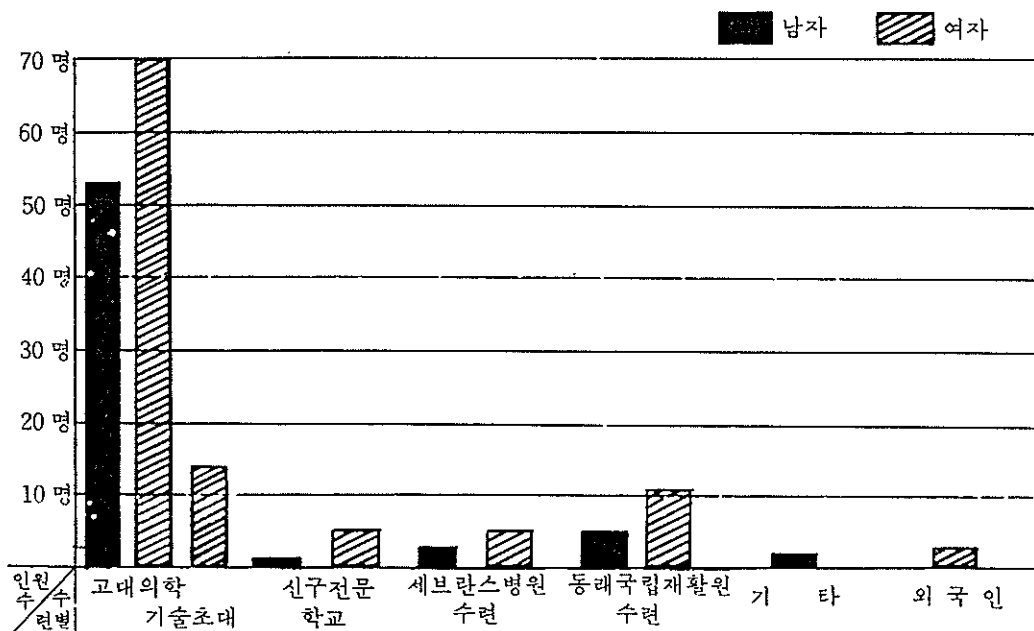
c. 취업별로 분류해 보면

(별첨 3 참조)

역시 고대의학기술초급대학을 졸업한 물리치료사가 제일 많음을 알 수 있고 (남자 53명, 여자 84명), 기타에선 여자가 한사람도 없고,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면허를 취득하고 또한 병원에 근무중인 물리치료사는 여자뿐임을 알 수 있다.

취업인원의 합계는 175명.

<별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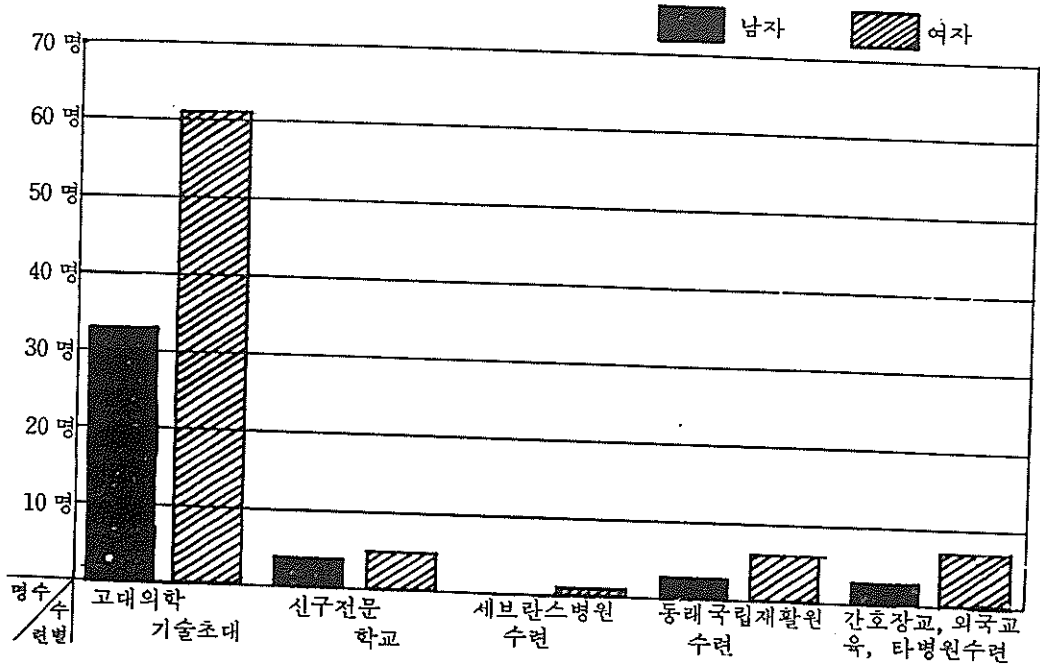
d. 미취업 현황을 살펴 보면

(별첨 4 참조)

미취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94명(남자 33명, 여자 61명)으로 고대의학기술초대 출신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장교나 외국교육을 받고 온 회원과 타병원에서 수련받은 물리

치료사가 많았고, 동래국립재활원과 신구전문학교 졸업생이 9명씩임을 알 수 있다.
미취업인원은 123명(남 43, 여 80)

〈별첨 4〉



미취업의 원인을 살펴보면,

1. 기성인(세브란스병원, 동래국립재활원, 기타의 간호장교나 외국교육을 거쳤거나 타병원에서 수련받은 사람을 말함. 이후 기성인으로 명시함.)의 경우 남자는 타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자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취업을 안하고 있었으며,
2. 졸업생의 경우 T/O가 없기 때문에 미취업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0%)
3. 졸업생중 나머지 20%는 대개 여자의 경우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야 하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병원내규에 따라서)

e. 해외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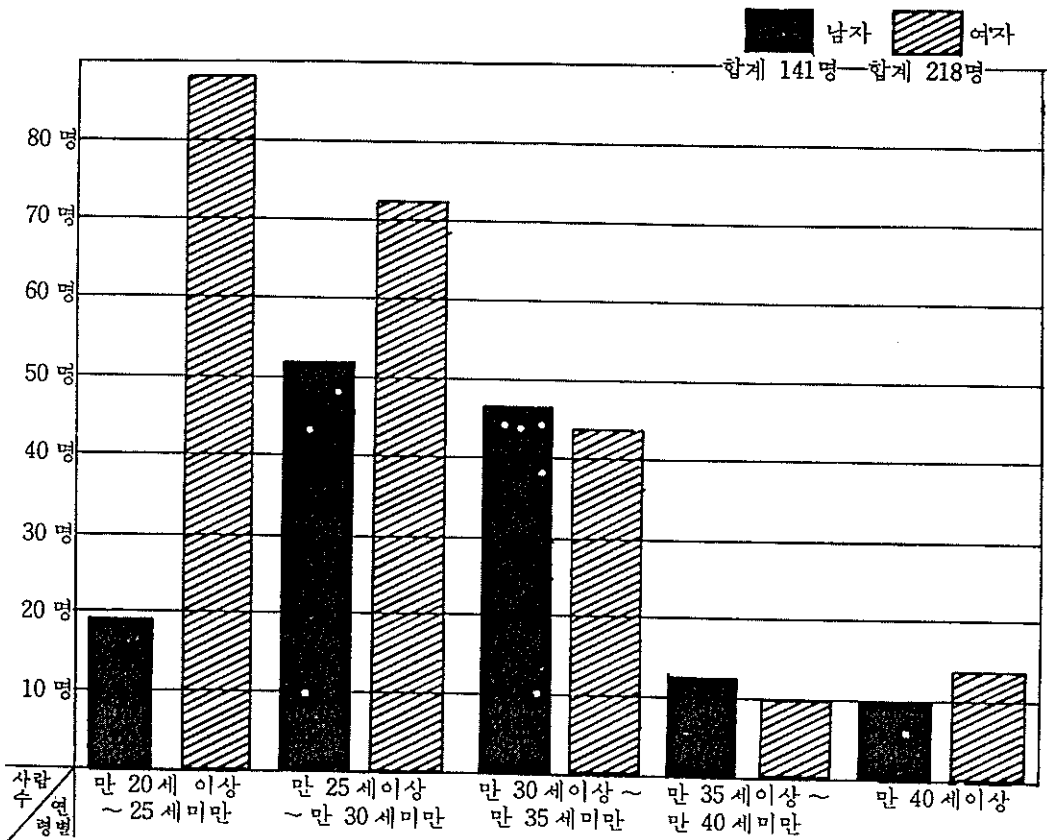
고대의학기술초급대학 졸업생이 37명(남자 17명, 여자 20명)으로 가장 많고 그외 세브란스 수련생이 여자만 3명, 동래국립재활원 수련생은 각각 3명씩임을, 기타가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합계 49명(남자 22명, 여자 27명)임을 알 수 있었다.

해외는 미국이 가장 많고 그외로 캐나다와 스칸디나비아와 중남미에 약간씩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 기타 현황

남자의 경우 100%가 군복무 때문이며 여자 1명은 간호장교로써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제

〈별첨 5〉 연령별 분포현황



대후 한일병원에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서독병원에 파견근무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원 영희 씨이다.

g. 연령에 따른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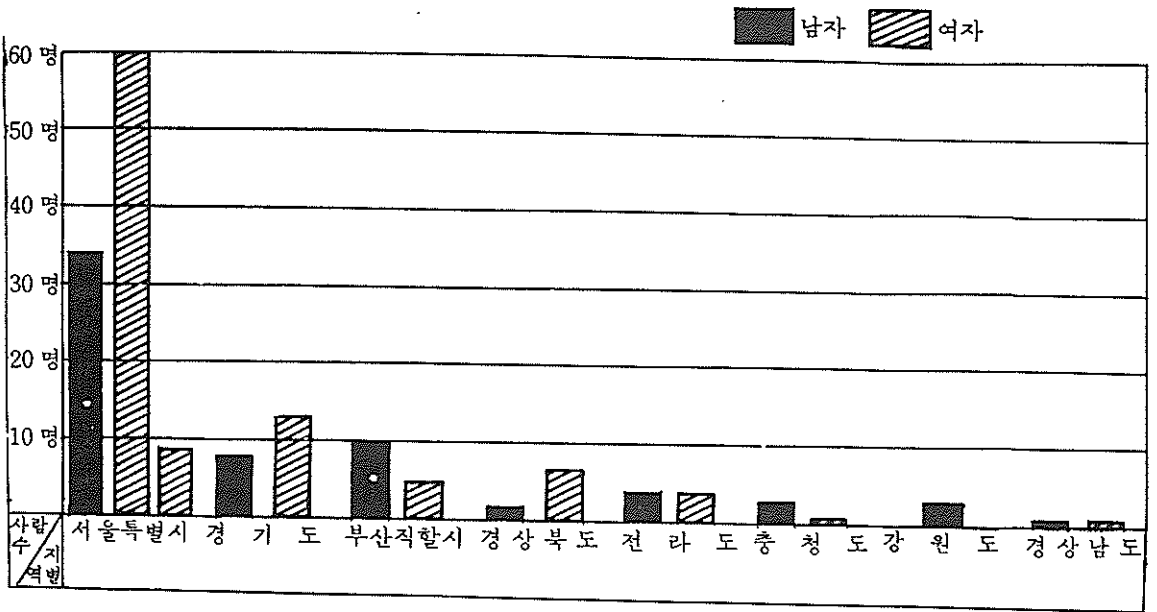
(별첨 5 참조)

1976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남자의 경우 만 2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40세 이상은 불과 1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여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만 25세 미만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남자와는 달리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10명으로 가장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가장 심한 연령도 만 20세 이상 만 25세 미만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59명 많음. ※ 남자 19명 여자 78명) 만 30세 이상부터는 3~4명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고연령자는 (우리나라의 물리치로사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도 우숙여사로서) 만 60세, 최저 연령자는 만 20세임을 알았다.

h. 지역별 분포현황(취업된)



(별첨 6 참조)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113명 (남자 34명, 여자 79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21명), 부산직할시 (15명) 순임을 알 수 있겠고, 부산직할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자 65명중 31명(약 48%)이 지방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는 한명도 없으며, 의외로 경상남도에 2명의 물리치료사만 있음도 알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31명씩이었고, 강원도의 경우 여자가 한명도 없었다. (과거엔 장성병원에 1명 있었으나 남자로 배치되었음.)

이로써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자의 취업이 훨씬 순조로움을 알 수 있는 반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남자의 취업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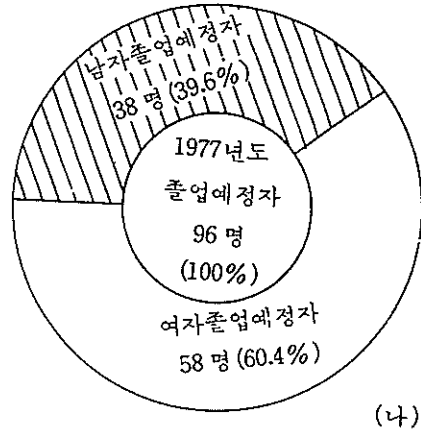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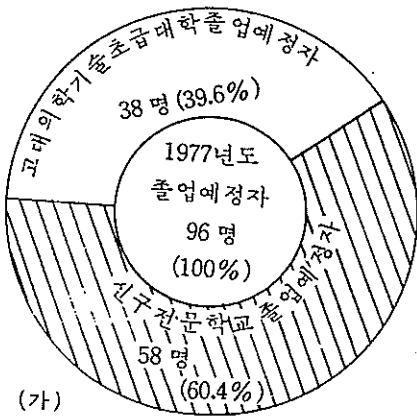
2. 앞으로의 회원 전망

1977년과 1978년의 졸업에 예정자수를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2', 2" 참조)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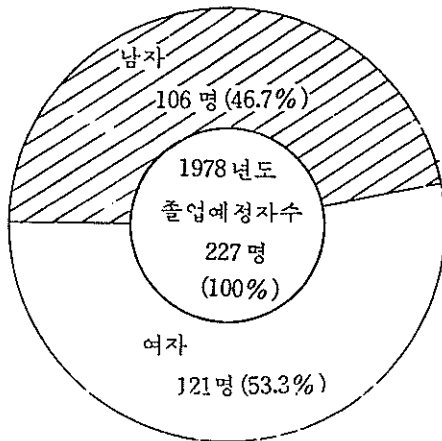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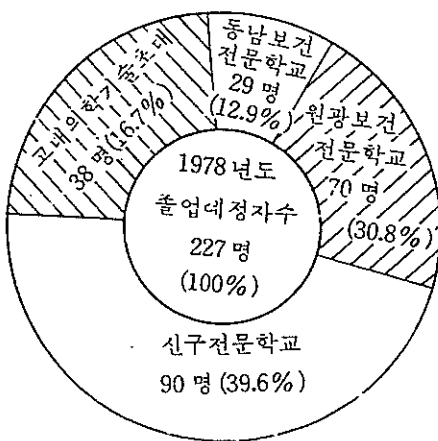
1977년도는 고대의학기술초대와 신구전문학교에서 정원 120명에 졸업예정자 96명(남자38, 여자 58)이 예상되며, 1978년도엔 고대의학기술초급대학에서 38명(남 7, 여 31), 신구전문학교에서 90명(남 55, 여 35), 원광대학부속전문학교에서 70명(남 33, 여 37), 동남보건전문학교에서 29명(남 11, 여 18) 가량이 예상되어 총합계 227명(남 106, 여 121)이 예상되나 현재의 추세로 보아 (정원 280명에 227명의 현재원) 200명내로 예정자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 교 명	1977년		1978년		계		총 계
	남	녀	남	녀	남	녀	
고대의학기술초급대학	11/10	29/28	8/7	32/31	19/17	61/59	80/76
신구전문학교	39/28	41/30	72/55	48/35	111/83	89/65	200/148
원광대학교부속전문학교	0	0	36/33	44/37	36/33	44/37	80/70
동남보건전문학교	0	0	17/11	23/18	17/11	23/18	40/29
계	50/38	70/58	133/106	147/121	183/144	217/179	400/323
총 계	120/96		280/227		400/323		40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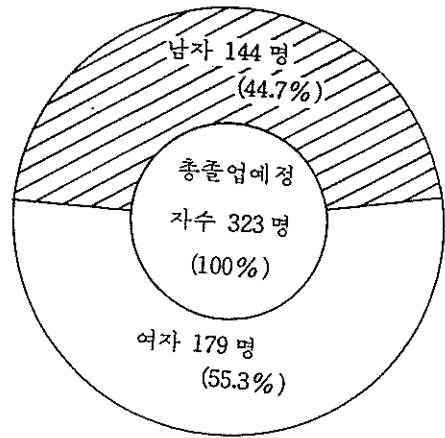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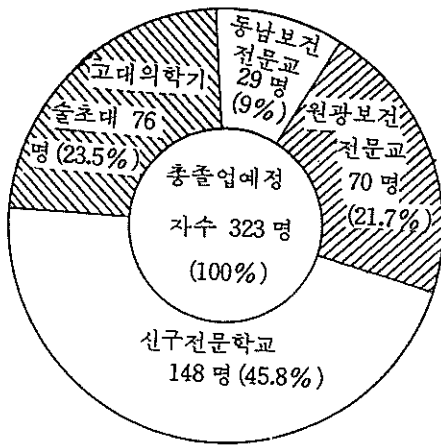
〈그림 2〉 졸업예정자수



〈그림 2'〉 1977년도 졸업예정자수 < (가) 학교별
(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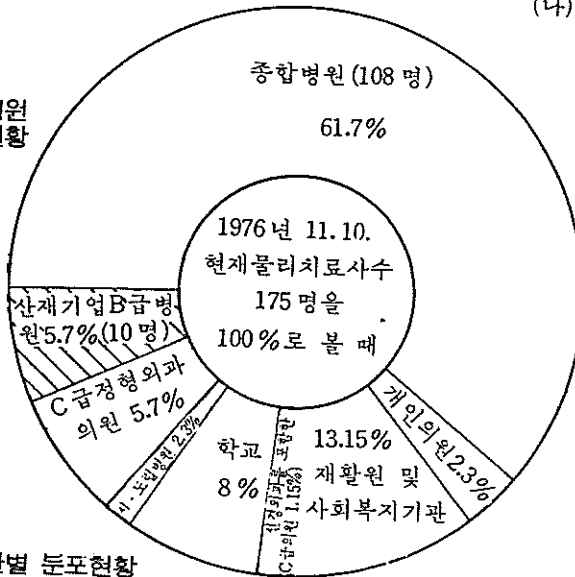


〈그림 2''〉 1978년도 졸업예정자수 < (가) 학교별
(나) 성별



〈그림 2'〉 1977년도·1978년도의 총 졸업예정자수 < (가) 학교별
(나) 성별

〈그림 3〉 물리치료사병원 및 기관별 소요현황



〈그림 3'〉 병원 및 기관별 분포현황
1976년 11월 10일 현재

병원 및 재활기관, 학교	시 기 (時期) 1976. 11. 10 현재 물리치료사수	최적수의 물리치료사수	비 고
종합 병원	108 명	162 명	(-54) 현재보다 54명 증원요
시·도립병원(36개병원)적십자병원 7개포함	4 "	72 "	현재보다 68명 증원요 병원당 P.T수 2명씩
산재가 입 병원 (B급이상) -57개 병원	10 "	70 "	현재보다 60명 증원요 병원별 P.T수 1.2명씩
정형외과를 포함한 산재가 입 의원 (C급이상)	10 "	80 "	(-70) 병원당 P.T수 1명씩
신경외과를 포함한 산재가 입 의원 (C급이상)	2 "	30 "	(-28) 병원당 P.T수 1명씩
재 활 원 및 사 회 복 지 시 설 기 관	23 "	38 "	(-15) 재활원 계획에 의거함
학 교 (전 임 강 사 및 조 교)	14 "	(?) 14 "	예 상 불 가
개 인 의 원	4 "	(?) 4 "	"
합 계	175 "	470 "	-295 명

3. 물리치료사의 취업전망

노동청에서 집계한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수와 보사부자료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통계에 의거하여 물리치료사의 전망과 노동청 집계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수요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및 3' 참조)

이와 같은 숫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1974년에 보건사회부에 낸 보고서에 의거 1일 1인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인원수가 8명내지 12명으로 볼 때 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다소간의 차이는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시도립병원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있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의료보험제도의 실시가 얼마큼 활발히 시행되느냐에 많은 비중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기업체의 부속병원일 경우는 자체수가로 치료비를 청구하기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6년 11월 10일 현재 175명이며 최적수의 물리치료사가 470명이므로 29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병원 및 기관별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一)의 숫자는 증원의 수를 의미하며 학교및 개인의원 경우는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를 표시했다.

Ⅲ. 결 론

본론 1(회원현황)의 d. (미취업 현황)와 본론 3(취업전망)을 비교해 볼 때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T/O가 없어 쉬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83명(졸업생의 80%)이고 증원가능수가 295명이니까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시행령 제24조-의료인 등의 정원-②항3에 의거]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경우 212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1977년과 1978년 졸업예정자 323명중 면허시험 합격율과 졸업시기까지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1978년까지는 별 문제가 따르지 않겠으나 앞으로 전문학교가 계속 증설될 경우 1979년부터 포화상태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감시반을 계속 활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원 및 의원에 엄중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물리치료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겠으며, 문교부에서는 전문학교의 증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존하는 전문학교만이라도 일관성있고 짜임새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교육시설이 미비된 곳은 없는가?` ②`교수진(현재 거의 모두가 전임강사 내지는 대우전임에 불과하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③`실습을 시킬만한 병원은 충분한가?` ④`강의시간의 분배는 만족할 만 한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습

시간 미달과 전기요법 시간의 미달로 해외로의 인력수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원인(병원은 많으나 물리치료사의 마취업자가 많은)은 노동청에서 규정한 산재치료단가와 자동차보험회사의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단가 재조정이다.

물리치료의 종류는 광범위한데 비해 산재환자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 것은 ① 두관절 이상 더운 찜질(Hot Pack)과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Exercise 을 해줄 경우 500 원(B급병원) ② 두부분이상 맞-싸지를 할 경우 역시 500 원(B급병원) ③ 자외선 및 적외선 치료를 했을 때 240 원(B급병원)

이상 세가지만 가능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단파치료, 초음파치료, 수치료를 했을 경우는 청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위의 세가지 경우도 1976년 인상을 시켜서 많이 높아졌다는게 고작 그 정도다. 자동차보험환자도 산재환자에 비해 더 낮은 치료비만 청구 가능하며,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회사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이 아닌 병원의 경우 적정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낮은 치료단가로 인하여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 물리치료사의 고용은 적자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며, 고정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두기보다는 시간제로 환자가 많을 경우에만 치료를 맡기는 폐단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완벽할만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